

치솟는 사료가격, 사료업체와 양돈농가의 상생(相生)

이 현우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사료값은 금값

요즘 양돈농가들은 사료값이 금값처럼 뛴다는 얘기를 종종 한다. 사료가격이 2~3개월 간격으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은 사료허실을 줄이기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약 6%의 사료가격이 오른 뒤 2월, 5~6월 그리고 9~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약 25%의 사료가격이 인상됐다.

왜 사료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일까? 사료 업계에 따르면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비의 폭등 영향 탓이다.

2006년 1월 139달러였던 옥수수 평균가격은 그 해 4월 144달러, 7월 154달러, 10월 191달러로 상승세를 거듭하더니 11월은 215달러로 2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올 1월 219달러에서 시작한 옥수수 가격은 3월 235달러, 5월 235달러, 7월 230달러 등을 기록, 230달러 전후에서 형성돼 다소 안정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9월 평균가격이 258달러에서 형성하는 등 최근 들어 옥수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10월 12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285달러까지 치솟았고 일각에서는 3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두박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1월 266달러에서 올 2월 300달러를 넘어선 대두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10월 12일 현재 42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옥수수 가격의 급등은 해상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세 때문이다. 해상운임지표인 BDI 지수는 지난 11월 1만 포인트를 넘어섰다. 지난 1985년 기준점 1,000포인트를 시작으로 발표한 이래 최대치이다.

중국의 철강 물동량 급증과 이를 공급하는 선박량 부족 등의 이유로 상승기류를 탄 해상운임비는 곡물수급의 안정기였던 2004년 톤당 50달러 미만에서 형성됐지만 최근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일부에서는 118달러까지 오르는 등 부르는게 값이라고 한다.

향후 곡물가격 전망도 밝지 못하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동량이 늘어나 4/4 분기에도 옥수수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내

년 1/4분기에 약보합세로 전환될 수 있지만 변수가 많아 미지수"라며 "추수철을 맞아 곡물 물동량도 많아져 당분간 해상운임비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옥수수 가격도 톤당 3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료회사 절반가량이 영업이익 증가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사료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사료업체들은 네 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사료업체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허덕이는 농가들과 비교해 그들만 배를 불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라 9개 사료업체의 상반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A업체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22억3502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억6440만원보다 무려 158.6% 증가했다. B업체의 올 6월까지 영업이익도 전년동기대비 31.3% 늘어난 21억7430만원, C업체는 16.8% 오른 25억4124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약 12억원의 적자를 보았던 D업체는 올 상반기 4억6534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업체 중 4개업체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3개업체는 비슷한 수준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H·I업체만이 각

각 10억7100만원, 5억5468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다.

통상적으로 사료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약 3% 전후에서 형성되지만 B업체 8.4%, E업체 6.7%로 이익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들의 경영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료업체들의 여신금액을 살펴보면 J업체는 지난해보다 여신금액이 30% 늘어났고 K업체는 무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들은 사료가격 인상과 축산물 소비부진, 축산물 가격 저조 등으로 수익이 감소해 사료값 갚기가 버거운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료업체들은 사료가격의 고공행진 속에서 축산농가들이 살아남는 법으로 고급육 사육, 사료요구율 절감, 사양관리 개선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판매관리비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등 경비절감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의 상반기 판매관리비는 107억7796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4억4413만원보다 27.6% 증가했고, B업체도 35.6% 늘어난 49억8435만원을 판매관리비로 지출했다. E업체는 17.6% 증가한 167억6747만원, F업체는 37% 증가한 75억7297만원으로 조사됐다.

판매관리비 중 접대비는 A업체는 52.9% 증가했고, B업체 25.3%, D업체 6.5%, F업체 9%, G업체 5% 늘어났다.

〈2006, 2007년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박 가격 흐름〉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옥수수	139	143	140	144	145	148	154	163	164	191	215	210
대두박	266	259	249	244	248	256	248	248	257	277	293	282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옥수수	219	235	234	227	235	242	230	241	258	285		
대두박	289	312	316	299	311	344	351	351	399	429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사료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료업체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허덕이는 농가들과 비교해 그들만 배를 불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다. 국제곡물가격의 고공행진 속에서 축산농가와 사료업체들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양돈농가들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료업체들도 농가가 살아야 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상생의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는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며 "판매관리비의 경우 사료업체간 과당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농장 확보를 위한 접대비 지출이 불가피해서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료가격인상과 관련 농가 차별도 심각한 수준

세번째 가격인상시기였던 지난 5월 대부분 농장은 그 무렵 인상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경북의 L농장(5000톤 규모)은 기존 거래처인 M사료에서 N사료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6월말까지 가격인상을 하지 않는 내용에 합의했다. 천안과 평택 등지에 위치한 또 다른 농장(3800톤)도 7월 1일부터 사료가격인상을 적용받았다.

충남지역 사료업체 관계자는 "국제곡물가격이 올라 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곳은 사료업체"라며 "곡물가격은 올랐지만 사료가격인상 적용시점을 달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가별로 다르게 사료가격인상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농가 차별화의 시작"이라며 "인상요인 또는 인하요인이 있다면 모든 농가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비의 폭등에 따른 사료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다만 업체들이 적용하는 방법과 행태가 농가들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축산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인상 또는 인하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도 사료업체가 요구하는 사료 관련 제도 개편 및 확대 등을 지원하는 등 사료가격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2/102로 적용하고 있는 사료원료 의제매입세 환급세율을 5/105로 확대할 경우 344억15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 1%의 사료가격 경감효과가 나타난다.

또 일몰법에 의해 2008년까지 적용하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도 항구적 법률을 제정,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일몰시한 경과 후 과세로 적용하면 평균 9.1%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농림부도 관련 세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칼자루는 정부 살림을 담당하는 재경부가 쥐고 있어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국제곡물가격의 고공행진 속에서 축산농가와 사료업체들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양돈농가들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료업체들도 농가가 살아야 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상생의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돈**